

스페인의 거지들

NO.3

연재 3호

하지만 스페인에는 거지만 있는 게
아니야. 거지한테서 물러난다면,
우리는 그 나라 전체에서 물러나
는 셈이 돼. 도움의 순환 가능성에
서 물러나는 거야. 수년 전 앨리스
가 자기 방에서 내게 원했던 것이
바로 그 도움의 순환이었어. 겁에
질리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임신한
앨리스는 나를 돕고 싶어 했어.

낸시 크레스

옮긴이: 장소연, 에디터: 홍지은

Beggar in Spain by Nancy Kress
Copyright © 1991 by Nancy Kress
Published by agreement with Ralph M.
Wentz, Ltd. through Sherwin Agency Co.
Original text: Nancy Kress (Beggar in Spain)
(Asimov's Science Fiction) 1991

Translated by Jeong Soyeon

캠든은 일주일 뒤에 죽었다. 장례식 뒤에 레이샤는 브룩필드 악물 및 알코올 중독 교정원에 있는 어머니를 만나러 갔고, 엘리자베스 캠든은 외동딸인 엘리스 캠든 와트라우스 말고는 아무도 만나지 않는다는 답을 들었다.

상복을 입은 수전 델링이 레이샤를 공항까지 배웅했다. 수전은 학업, 하버드, 《로 리뷰》에 관해 작정한 듯이 계속해서 물었다. 레이샤는 통명스럽게 대답했지만, 수전은 끈질기게 묻고 말없이 대답을 재촉했다. 변호사 시험은 언제 치니? 어느 로펌에 면접을 볼 생각이니? 레이샤는 아버지의 관을 내린 다음부터 시작된 무감각한 상태에서 서서히 벗어나며, 수전의 끝없는 질문이 친절에서 우려난 것임을 깨달았다.

“아버지는 많은 사람을 희생하셨어요.”

레이샤가 불쑥 말했다.

“난 아냐. 그의 일을 맡으려고 연구를 그만두었을 때는 그랬지만. 로저는 희생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었지.”

“아버지가 틀렸나요?”

레이샤의 질문에는 의도하지 않았던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수전이 슬픈 미소를 띠었다.

“아니, 틀리지 않았어. 내가 연구를 그만두지 말았어야 했어. 그 뒤에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지.”

아버지는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지. 누가 했던 말이지? 수전? 엘리스?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다. 레이샤는 이제는 텅 빈 온실에서 아끼던 이국적인 화분을 갖고 또 갈던 아버지를 떠올렸다.

피곤했다. 스트레스 때문에 근육이 지쳤다. 20분만 쉬면 회복될 터였다. 익숙지 않게 눈물을 흘린 탓에 눈이 따가웠다. 레이샤는 머리를 뒤로 기대고 눈을 감았다.

수전이 공항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껐다.

“레이샤, 할 말이 있어.”

레이샤가 눈을 떴다.

“유언장에 관해서요?”

수전이 딱딱한 미소를 띠었다.

“아니, 로저가 유산을 분배한 방식에 아무 문제도 없다고 생각하지? 네 기준으로 보면 합리적인 결정이었어. 그 일이 아냐. 바이오테크와 시카고 의대가 버니 쿤의 뇌 해부 결과 분석을 끝냈어.”

레이샤는 수전 쪽으로 시선을 돌렸고, 수전의 얼굴에 떠오른 복잡한 표정에 깜짝 놀랐다. 각오, 만족, 분노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다음 주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분석 결과가 실려. 언론으로 새나가지 않게 보안에 각별히 신경 써왔지.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발견

했는지 네게 지금 직접 말해주고 싶어. 네가 대비할 수 있게 말이야.”

“말씀하세요.”

가슴이 답답해졌다.

“수면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다른 불면인들과 인터루킨-1을 마신 일 기억하니? 열여섯 살 때?”

“어떻게 아셨어요?”

“너희는 생각보다 훨씬 빈틈없이 관찰되고 있었어. 마신 다음의 두통을 기억하니?”

“네.”

그녀와 리처드와 토니와 캐럴과 브래드, 지아닌... 아니, 제니퍼. 숲에 함께 있었던 사람은 제니퍼였다.

“인터루킨-1(IL-1)에 관한 이야기.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관련이 있어. 인터루킨-1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물질로 항체 형성과 백혈구의 활동을 촉진해.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장파수면 중에 IL-1을 집중적으로 배출해. 그들은—우리는—자는 사이에 면역 체계를 강화한다는 뜻이지. 28년 전에 우리 연구자들은 IL-1을 집중 배출하지 않는 불면아들이 병에 자주 걸리지 않을까 고민했어.

“전 한번도 아픈 적이 없어요.”

“있단다. 수두를 앓았고 네 살 때 가벼운 감기를 세 번 앓았어.”

수전이 정확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너희들은 모두 굉장히 건강했지. 그래서 수면에 의해 유도된 면역 체계 강화에 관한 대안 가설이 남았어. 수면 상태의 신체가 더 질병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으로써 항체 형성 작용 역시 수면 중에 활발해진다는 가설이지. REM 수면 중의 체온 변화와 연관 있는 것 같아. 즉 수면이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그 결과 IL-1 같은 내생적 발열원이 방출된다는 말이야. 수면이 문제의 원인이고, 항체 형성 작용이 해결책이었어. 잠을 자지 않으면 문제도 없어지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당연히 알겠지. 멍청한 질문이었네.”

수전이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걷어냈다. 머리뿌리가 하얗게 섰고 오른쪽 귀 아래로 작은 검버섯이 보였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천 장, 아니 수십만 장의 뇌 단일 광자 단층 촬영을 하고, 뇌파 검사며 뇌척수액 샘플 검사 따위를 끝없이 해왔지만, 너희 머릿속을 직접 들여다보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 수는 없었어. 버니 쿤이 제방을 들이받기 전까지는 말이야.”

“수전, 서론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너희는 늙지 않아.”

“뭐라고요?”

“아, 겔보기에는 조금 나이가 들겠지. 중력으로 피부가 처진단든지. 그러나 면역과 조직 재생 체계가 수면 펩티드 등의 결여로 인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방식으로 영향을 받아. 버니 쿤의 간은 깨끗했어. 폐, 심장, 림프선, 췌장, 연수 모두 완벽했어. 단지 건강하거나 젊은 정도가 아니라 완벽한 상태였어. 분명히 면역 체계의 활동에 기인하지만 우리 예상과는 전혀 다른 조직 재생 촉진 기제가 있어. 장기들이 전혀 손상되지도 닳지도 않았어. 보통의 열일곱 살이라면 당연한 정도의 변화도 없었어. 너희의 장기는 그저 완벽하게 고쳐지고, 고쳐지고... 고쳐져.”

“언제까지요?”

“누가 알겠어? 버니 쿤은 어렸어. 어쩌면 특정 시점에 다른 메커니즘이 끼어들어 너희 모두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처럼 한꺼번에 쓰러질지도 모르지. 하지만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을 거 같아. 어떤 조직 재생도 영원히 이어지지 않지만, 아주 오랫동안 괜찮을 거야.”

레이샤는 앞유리에 흐릿하게 비친 자신의 얼굴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푸른 공단으로 덮인 관 속에서 백장미에 파묻혀 있던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다. 조직 재생을 하지 못한 아버지의 심장은 움직임을 멈추었다.

“지금 시점에서는 모두 추측일 뿐이야. 보통 사람에게 줄음을 유발하는 펩티드 구조는 박테리아 세포벽의 구성과 유사해. 어쩌면 수면과 병원균 수용체가 관련 있을지도 몰라. 우리는 아직 모르지만, 타블로이드가 모른다고 보도를 안 한 적은 없었지. 너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고 싶었어. 너희는 슈퍼맨, 호모 펄퍼투스, 전지전능자, 불사신으로 불릴 테니까.”

두 여자는 차안에 말없이 앉아 있었다. 마침내 레이샤가 입을 열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야겠어요. 데이터넷을 통해서요. 보안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케빈 베이커가 그룹넷을 설계했으니 아무도 우리의 비밀을 알아내지 못할 거예요.”

“벌써 그만큼이나 조직화되었니?”

“네.”

수전이 입을 썉룩거리더니 레이샤에게서 고개를 돌렸다.

“들어가야겠다. 비행기를 놓치겠어.”

“수전...”

“왜?”

“고마워요.”

“천만에.”

레이샤는 수전의 목소리에서 조금 전에 수전의 얼굴에 떠올랐던 포정의 의미를 이해했다. 그것은 갈망이었다.

조직 재생. 오랫동안, 오랫동안. 보스턴으로 가는 내내 이명이 있었다. 조직 재생. 그리고 결국은 불사. 아니, 그건 아냐. 레이샤는 마음을 다잡으려고 했다. 그러나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계속 웃으시네요.”

일등석 옆자리에 앉은, 레이샤를 알아보지 못한 사업가가 말을 걸었다.

“시카고에서 큰 파티에라도 참석하셨나요?”

“아뇨, 장례식예요.”

남자는 충격을 받은 듯하더니 역겹다는 표정을 지었다. 레이샤는 창밖으로 아득한 지면을 내려다보았다. 짐작회로 같은 강, 깔끔한 색인카드 같은 눈. 수평선으로는 폭신평신했던 흰 구름이 빛으로 가득 찬 온실에서 피어나는 이국적인 꽃들처럼 피어올랐다.

봉투는 평범한 편지 두께였다. 그러나 손으로 쓴 편지가 오는 경우는 무척 드물었기 때문에 리처드는 긴장했다.

“폭발할지도 몰라.”

레이샤는 현관 서랍장 위에 놓인 봉투를 보았다. ‘레샤 캠프 씨께’. 철자가 틀린 대문자였다.

“어린애가 쓴 것 같아.”

리처드는 고개를 내밀고 다리를 벌린 채 서 있었지만, 지친 표정이었다.

“일부러 아이 글씨를 흉내 냈을 수도 있지. 아이라면 긴장을 풀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라.”

“누가? 리처드, 우리 피해망상이 그 정도까지 왔어?”

리처드는 질문에 움찔하지 않았다.

“그래, 지금은.”

일주일 전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수전의 신중하고 침착한 논문이 실렸다. 한 시간 뒤부터 방송과 데이터넷 뉴스에는 추측, 신파, 분노, 공포가 넘쳐흘렀다. 레이샤와 리처드는 그룹넷에 속한 불면인들과 함께 지배적인 반응을 찾기 위해 사람들의 반응을 추적하여 네 영역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했다. 추측(“불면인들은 수백 년 동안 살 테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건이 일어날...”), 신파(“만약 불면인이 수면인하고만 결혼한다면 신부를 십수 명 얻어서 아이를 수십 명 낳고, 황당할 만치 피가 뒤섞인 가문이...”), 분노(“자연의 법칙에 반한 유전자 조작의 결과 우리 사이에 불공평한 이점을 가지고 살아갈 부자연스러운 인간들을 만들어내어, 그들은 더 많은 자손을 낳고, 더 많은 권력을 갖고, 남은 우리들보다 더 많은 부를 쌓아올리고...”), 공포(“초인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데 얼마나 걸릴까?”)

“어떻게 나타나든 결국은 모두 공포야.”

캐롤린 리즐로가 마침내 결론을 내렸고, 그룹넷은 더 이상의 추적 분류를 그만두었다.

레이샤는 로스쿨 졸업반으로 기말고사를 치고 있었다. 매일 교정, 복도, 교실에서 수군거림이 뒤따랐다. 매일 그녀는 모든 학생들이 위대하신 대학 앞에서 보잘것없는 청원자의 처지로 전략하는 힘든 시험을 치르며 그 사실을 잊었다. 시험이 끝나자 지친 레이샤는 사

람들의 시선과, 그들과 레이샤 사이에 선 경호원 브루스의 존재를 느끼며 리처드와 그룹넷이 있는 집으로 걸어 돌아왔다.

“진정될 거야.”

레이샤가 안심시켰지만 리처드는 대답하지 않았다.

텍사스의 솔트 스프링스에서는 불면인에게 주류 면허 발급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독립선 언문상 시민권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창조된’ 조건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불면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다.

솔트 스프링스로부터 100마일 근방에는 불면인은 한 명도 없었고, 지난 10년간 솔트 스프링스에서 주류 면허를 신청한 사람 역시 한 명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소식은 연합 언론과 데이터넷 뉴스를 통해 즉시 퍼져나갔다. 만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찬반 양측의 격앙된 사실이 전국에서 쏟아졌다.

조례가 추가로 제정되었다. 펜실베이니아 주 폴룩스에서는 계속해서 깨어 있는 불면인들이 가옥 내 생활 시설의 수명을 단축하고 시설사용료를 과다 지출시키므로 부동산 소유주가 불면인에게 주택 임대를 거부할 수 있다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캘리포니아 주 크랜스톤 에스테이트에서는 불면인들의 24시간 영업을 ‘불공정 경쟁’이라며 금지했다. 뉴욕 주 이로쿼이 카운티는 시간 의식이 왜곡된 불면인들은 ‘대동한 시민의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면인의 배심 참가를 금했다.

“모두 대법원에서 파기되겠지.”

레이샤가 말했다.

“하지만 맙소사! 쓸데없이 낭비될 돈과 시간을 생각하면!”

레이샤는 마음 한구석으로 자신의 말투가 로저 캠펜과 비슷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합의한 성인 간의 특정 성행위를 지금까지도 범죄로 처벌하는 조지아 주에서는 불면인과 수면인 간의 성관계를 수간에 준하는 제3급 중죄로 지정했다.

케빈 베이커는 뉴스넷을 고속 검색해 불면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나 차별 행위를 유형별로 분류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그룹넷으로 검색 결과에 접속할 수 있었다. 레이샤는 결과를 훑어 보고 케빈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리를 옹호하는 입장을 검색하는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어? 우리 지금 왜곡된 정보를 받고 있어.”

“맞는 말이야.”

케빈이 조금 놀란 어조로 대답했다.

“그 생각은 미처 못 했네.”

“생각해봐.” 레이샤가 침울한 어조로 말했다. 리처드는 말없이 그녀를 지켜보았다.

불면인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가 레이샤를 가장 화나게 했다. 퇴학당하고, 형제자매에게 욕을 먹고, 이웃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특별한 아이를 원했지만 수백 년 살 자식을 받아들일 준비는 없었던 부모의 당혹한 분노를 마주해야 했다. 아이오와 주 콜드 리버

의 교육위원회는 불면아동의 일반 학교 수업 참여를 금지시켰다. 불면아들의 신속한 학습 능력이 '다른 학생들의 학습을 방해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열등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었다. 위원회에서서는 불면아동들의 가정교사 자원금을 마련했지만, 어떤 교사도 자원하지 않았다. 레이샤는 8월에 치를 변호사 자격 시험을 준비하는 와중에도 최대한 시간을 내어 그룹넷의 아이들과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스텔라 베빙톤의 접속이 끊겼다.

케빈의 프로그램은 불면인들을 공정하게 대우하자는 주장이 담긴 기사를 여덟 편 찾아냈다. 덴버의 학교위원회는 불면아를 포함한 영재 아동들이 더 어린 아동들을 가르치면서 능력을 개발하고 팀워크를 익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루이지애나 주의 리브 뷰 시의회회장으로 스물두살이라 아직 피선거권이 없는 불면인인 대니얼 듀 체니가 당선되었다. 할리 홀의 유명한 의로 회사는 세포물리학 박사인 불면인 크리스토퍼 암텐의 채용을 적극 홍보했다.

델러스에 사는 불면인 도라 클라크는 자신에게 온 편지봉투를 열었다가 사제 폭탄이 폭발해 한 쪽 팔을 잃었다.

레이샤와 리처드는 서랍장 위에 놓인 봉투를 응시했다. 연백색 종이는 두꺼웠지만 비싼 물건은 아니었다. 양피지처럼 보이게 염색한 두툼한 신문용지 같았다. 반송 주소도 없었다. 리처드는 미시건에서 범죄학을 전공하는 리즈 비숍에게 전화했다. 리즈는 둘과 모르는 사이였지만 즉시 그룹넷에 접속해 봉투를 안전하게 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원한다면 직접 찾아와 열어주겠다고 했다. 리처드와 레이샤는 지하실로 내려가, 리즈가 폭발가능성을 가장 낮춘다고 가르쳐준 방식으로 봉투를 열었다. 아무것도 폭발하지 않았다. 그들은 편지지를 꺼내 읽었다.

캠든 씨께

제게 친절하게 대해주셨는데 죄송하지만 저는 그만둡니다. 노조에서 골치 아프게 하고 있어요. 공식적인 일은 아니지만 어떤 건지 아시겠죠. 저라면 노조에 가서 새 경호원을 찾기도 하는 조용히 따로 구해볼 겁니다. 조심하세요. 죄송합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 해서요.

-브루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어.”

레이샤가 입을 열었다.

“폭발물이 터질까 봐 온갖 장비를 구해다가 몇 시간씩 걸려 설치했는데…”

“난 별로 다른 할 일도 없었는걸.”

리처드가 대답했다. 반불면인 운동이 거세진 다음부터 시장에서 약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론에 취약한 해양 상담 고객을 단 두 명만 남았다.

레이샤의 터미널에 커둔 그룹넷에서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렸다. 레이샤가 먼저 도착했다. 토니 인디비노였다.

“레이샤, 법률 문제로 도움이 필요해. 네가 날 도와주겠다면 말아야. 피난처에 소송이 걸렸어. 여기로 와줘.”

피난처는 늦봄의 대지에 생긴 적갈색 상처처럼 보였다. 뉴욕 주 남부의 앨러게니 산맥에 있었다. 세월에 동글어진 언덕이 소나무, 히코리나무로 덮여 있었다. 새로 깎은 길이 가장 가까운 마을인 코네완고에서 피난처 사이를 이었다. 저층 자가 발전 건물이 한창 서는 중이었다. 단순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이었다. 제니퍼 샤리피가 굳은 얼굴로 그들을 맞았다. 6년 전과 거의 변하지 않은 얼굴이었지만, 긴 검은 머리카락은 헝클어졌고 짙은 눈에는 피로한 기색이 완연했다.

“토니가 너와 얘기하고 싶어 해. 하지만 그 전에 너희에게 피난처를 보여주라고 했어.”

“무슨 일 있어?”

레이샤가 조용히 물었다.

제니퍼는 질문을 피하지 않았다.

“나중에 설명할게. 우선은 피난처를 봐줘. 레이샤, 토니는 네 의견을 무척 존중해. 네게 이곳 전체를 보여주라고 했어.”

50명씩 모여 살 주택 단지는 공용 부엌, 식당, 휴게실, 욕실, 분리된 사무실과 작업실, 연구실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원래 뜻과는 다르지만 우린 여길 기숙사라고 불러.”

다른 사람이 말했다면 농담처럼 들렸을 이 말에서조차 제니퍼 특유의 의식적인 차분함과 그녀가 지금 실제로 느끼는 긴장 사이의 기이한 균형이 느껴졌다.

애초 토니의 주장에 반대했던 레이샤에게도, 공동 생활과 지극히 개인적인 생활의 공존을 완벽하게 구현해낸 토니의 계획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체육관과 작은 병원까지 있었다.

“알다시피 내년 말이면 우리 중에 자격증을 가진 의사가 18명으로 늘어나지. 4명이 여기 오려고 생각 중이야.”

탁아소, 학교, 집중 농원도 있었다.

“물론 음식은 대부분 밖에서 들여올 거야. 최대한 데이터넷을 이용해 여기에서 작업하겠지만, 직업도 밖에서 구하겠지. 우린 세상에서 고립되려는 게 아니야. 그저 바깥 세계와 거래할 때 머무를 안전한 장소를 만드는 것뿐이지.”

레이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발전소 시설과 자가 충전 Y에너지 못지않게 인력 계획도 인상 깊었다. 토니는 피난처의 삶과 바깥 세계와의 거래 양쪽에서 필요한 거의 모든 분야의 불면인들과 접촉했다.

“변호사와 회계사들이 가장 먼저 올 거야. 우리의 첫 번째 방어선이지. 토니는 현대의 권력전은 대부분 법원과 이사회에서 치러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

하지만 모두 그렇지지는 않았다. 제니퍼는 마지막으로 물리적인 방어 계획을 보여주었다. 제니퍼의 몸에서 처음으로 긴장이 조금 풀어졌다.

모든 방어 조치는 침입자를 해치지 않으면서 공격을 저지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전기 감시 장치가 제니퍼가 산 240제곱킬로미터를 완전히 에워쌌다. 레이샤는 얼떨떨한 심정으로, 피난처의 규모가 몇몇 카운티보다도 크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감시 장치가 파괴되면 포-게이트로부터 반마일 이내 영역의 전기 장치가 활성화되어 그 안에 선 사람들 모두에게 전기 충격을 주었다.

“하지만 영역 바깥쪽으로부터 활성화돼, 우리 아이들이 다치는 일은 없을 거야.”

차량이나 로봇을 이용한 무인 침입은 피난처 내부에서 일정 질량 이상의 움직이는 금속 물체를 모두 탐지하는 시스템으로 판별해냈다. 핵심 전자 부품 특화를 가진 불면인인 도널드 포스폴라가 설계한 특별 신호 발송 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움직이는 모든 금속 물체가 요주의 대상이었다.

“물론 하늘에서 공격하거나 군대가 곧장 치고 들어올 경우까지는 대비하지 못했어. 하지만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해. 그저 사적인 증오심에서 공격해오는 사람들 정도겠지.”

레이샤는 피난처 계획서의 출력본을 손으로 쓸었다. 마음이 불편했다.

“우리가 세계에 녹아들어갈 수 없다면... 자유로운 거래는 자유로운 이동을 수반해.”

제니퍼가 망설임 없이 대꾸했다.

“자유로운 이동이 자유로운 정신을 수반할 때만 그렇지.”

제니퍼의 어조에 레이샤가 고개를 들었다.

“레이샤,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

“토니는 여기에 없어.”

“어디에 있는데?”

“코네완고의 카타라우구스 카운티 구치소에 있어. 우리가 피난처의 용도지역지구제 문제로 고심하는 건 사실이야. 용도지역지구 제한이라니, 이렇게 고립된 데서! 어쨌든 다른 문제가 있어. 바로 오늘 아침 일이었어. 토니는 티미 다마르초 유괴 혐의로 체포되었어.”

시야가 흔들렸다.

“FBI가?”

“그래.”

“어떻게... 대체 어떻게 알았지?”

“어떤 요원이 결국 상황을 알아냈나 봐. 어떻게 알았는지는 애길 안 해줬어. 레이샤, 토니에게는 변호인이 필요해. 빌 태인이 맡겠다고 했지만 토니는 네가 맡아주길 바라고 있어.”

“제니퍼, 변호사 시험은 8월이야. 난 아직 치지도 않았어!”

“토니는 기다리겠대. 그때까지 빌이 변호를 맡을 거야. 시험은 합격할 수 있지?”

“물론이야. 그렇지만 벌써 뉴욕에 있는 ‘모어하우스, 케네디 & 앤더슨’에서 일하기로 했는걸...”

레이샤는 입을 다물었다. 리처드가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제니퍼는 뜻 모를 시선을 던졌다. 레이샤가 나지막이 물었다.

“토니는 어쩔 생각인데?”

“유죄를 인정하고, 법률 용어로는 뭐라고 하지? 정상 참작을 주장하겠대.”

레이샤가 고개를 끄덕였다. 토니가 무죄를 고집할까 봐 걱정만 터였다. 무죄를 주장할 경우 더 많은 거짓말, 속임수, 지저분한 협상이 기다리고 있었다. 레이샤는 즉시 정상 참작, 판례, 판례 입증 등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클레멘트 대 보이’ 판례를 주장할 수 있을지도...

“지금 빌이 구치소에 있어. 나와 함께 가볼래?”

제니퍼가 도전하듯이 물었다.

“응.”

카운티 중심부에 있는 코네티컷에서 그들은 토니를 만나지 못했다. 변호사인 윌리엄 태인은 자유롭게 오갈 수 있었지만, 정식 변호사조차도 아닌 레이샤는 아무 데도 갈 수 없었다. d.a.의 사무실에 있던 남자는 굳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고, 자기 법원 바닥에 가래얼룩만 남을 뿐인데도 그들이 나가려고 등을 돌리자마자 섰던 자리에 침을 뱉었다.

리처드와 레이샤는 보스턴으로 돌아가기 위해 렌터카를 몰고 공항으로 갔다. 가는 길에 리처드는 떠나겠다고 했다. 지금 당장 아직 완성되지도 않은 피난처로 이사해서 피난처의 계획과 완공을 돕겠다고 했다.

레이샤는 변호사 시험에 대비해 맹렬히 공부하거나 그룹넷으로 불면아들을 살피며 하루의 대부분을 집에서 보냈다. 브루스를 대신할 경호원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 밖으로 나서기가 불편했다. 불편한 마음은 스스로에 대한 증오가 되었다. 레이샤는 하루에 한두 번씩 케빈의 뉴스넷을 훑어보았다.

희망적인 신호가 있었다. 《뉴욕 타임스》는 전자 뉴스 서비스를 통해 널리 퍼진 사실을 실었다.

번영과 증오

:우리가 보아서는 안 될 논리적인 귀결

미국은 안정, 논리, 합리성을 중시하는 나라인 적이 없었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차갑다’는 꼬리표를 붙이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와 기억을 찬양한다. 헌법의 제정이 아니라 이오지마에서의 수호에, 라이너스 폴링의 지적인 성취가 아니라 찰스 린드버그의 영웅적인 열정에 열광한다. 우리를 하나로 묶

있던 모노레일과 컴퓨터의 발명가들이 아니라 우리를 분열시켰던 거칠고 반항적인 작곡가들에게 열광한다.

이런 현상의 독특한 성격은 변영기일수록 그 경향이 강해진다는 점이다. 시민의 삶이 개선될수록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었던 차분한 논리에 대한 도전과 감정에 함몰되려는 열정이 거세진다. 지난 세기를 생각해보라. 포효하던 20년대의 과장스런 부절제와 60년대의 반체제 운동을 상기해보라. 이번 세기에 Y에너지가 가능케 한 전무후무한 변영과 켄조 아가이가 추종자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탐욕스럽고 냉혹한 논리학자로 여겨졌다는 사실을 상기해보라. 국민들의 찬사는 네오니힐리즘 작가 스트빈 카스텔리, '감정적인' 여배우 브렌다 포스, 무모한 중력벽 다이버 짐 모스 루터에게로 쏟아졌다.

허나 무엇보다도 당신이 Y에너지로 돌아가는 집에 앉아 이 현상에 관해 숙고한다면, 바이오 테크 연구소와 시카고 의대의 불면 조직 재생에 관한 공동 연구 결과가 발표된 이후 '불면인'들에게 향하는 비이성적인 감정의 분출을 떠올려보라.

대부분의 불면인들은 명민하다. 대부분의 불면인들은 차분하다. 다분히 악의적으로 사용되는 이 표현을, 자신의 에너지를 허풍을 떨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한다는 의미로 정의한다면 말이다. (폴리처상을 수상한 캐롤린 리졸로의 경탄스런 연극조차도 고삐 풀린 열정이 아니라 아이디어의 향연이었다.) 그들은 모두 성취를 향한 자연스런 지향성을 보인다. 성취에 쓸 시간을 하루에 3분의 1 더 가짐으로써 촉발되는 지향성이다. 그들의 성취는 대부분 감정보다는 이성의 영역에 있다. 컴퓨터, 법, 금융, 물리, 의료. 그들은 논리정연하고 차분하고 명석하고 활동적이고 젊으며, 아마도 아주 오래 살 것이다.

그리고 역사상 최대의 변영을 누리는 미국에서 그들은 점점 더 증오받고 있다.

지난 몇 달 사이에 화려하게 피어난 증오의 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직장을 구하고 승진하고 돈을 벌고 성공하는 데 불면인이 가진 '불공평한 이점'이라는 토양에서 자라났는가? 정말 불면인들의 행운에 대한 질시인가? '빨리 총 꺼내 쏘기'의 미국적인 전통에 기인한 좀더 치명적인 무언가에 뿌리를 둔 것은 아닌가? 논리, 차분함, 사려 깊음에 대한 증오는 아닌가? 사실은 우월한 정신에 대한 증오가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는 건국의 아버지들을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제퍼슨, 워싱턴, 페인, 애덤스... 그들은 모두 이성의 시대를 살았다. 이들은 바로 균형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의 개인적인 노력으로 일구어낸 변영과 성취를 보호하기 위해 질서정연하고 균형 잡힌 법률 체계를 만들었다. 불면인들은 우리 자신의 법과 질서에 대한 건전한 믿음을 향한 가장 힘든 내적 도전일지도 모른다. 그렇다. 불면인들은 '평등하게 창조되지' 않았다. 허나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가장 엄정한 법리를 논할 때와 같이 신중하게 분석되어야 한다. 우리 자신의 동기에 관한 진실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인

간으로서 우리의 진실성이 그 분석의 합리성과 지성에 달려 있을지도 모른다.

지난 연구의 발견에 대한 대중의 반응에는 합리성도 지성도 부족했다.

법은 연극이 아니다. 과장스럽고 극적인 감정을 반영하는 법안을 써내려가기 전에 우리가 그들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는지를 확신해야 한다.

레이샤는 기쁨에 사로잡혀 모니터를 응시하며 자신을 꼭 끌어안고 미소 지었다. 《뉴욕 타임스》에 전화하여 사설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물었지만, 친절하게 전화를 받은 상담원은 레이샤의 질문을 듣자 자사에서는 ‘내부 조사 전’에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무뚝뚝한 어조로 대꾸했다.

그 정도로 레이샤의 기분이 가라앉지는 않았다. 몇날 며칠 동안 책상이나 모니터 앞에만 앉아 있다가 집 안을 방글방글 돌았다. 기쁨 때는 몸을 움직여야 했다. 설거지를 하고 책을 정리했다. 리처드가 자기 짐을 가지고 나간 자리가 군데군데 비어 있었다. 조금 진정되자 가구를 움직여 틈을 메웠다.

수전 펠링이 《뉴욕 타임스》 사설을 읽고 전화했다. 둘은 몇 분 동안 살갑게 대화했다. 수전이 전화를 끊자마자 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레이샤, 네 목소리는 여전하네. 스튜어트 서터야.”

“스튜어트.”

레이샤는 그를 4년 동안 보지 못했다. 2년 정도 이어졌던 그들의 연애는 고통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학업의 압박에 눌러 자연스레 끝났다. 통신 터미널 앞에 서서 그의 목소리를 듣자, 비좁은 기숙사 침대에서 그녀의 가슴을 더듬던 그의 손길이 불현듯 다시 느껴졌다. 그 여러 해 전에 레이샤는 침대의 좋은 쓰임새를 찾아냈다. 상상 속의 손길이 리처드의 손으로 바뀌었고, 갑자기 날카로운 고통이 그녀를 꿰뚫었다.

“레이샤, 네가 알아야 할 것 같은 정보가 있어서 전화했어. 다음 주에 변호사 시험 보지? 그 다음에는 모어하우스, 케네디 & 앤더슨에서 인턴으로 일하기로 되어 있고.”

“스튜어트, 그걸 어떻게 알았어?”

“남자 화장실 소문으로. 뭐, 사실 그 정도 아니지만, 뉴욕의 법률 공동체는—최소한 일부분은—네 생각보다 훨씬 작아. 게다가 넌 상당히 눈에 띄는 인물이지.”

“그렇지.”

레이샤가 애매한 어조로 대답했다.

“아무도 네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아. 하지만 모어하우스, 케네디에서 일할 수 있을지는 좀 걱정스러워. 시니어 파트너 중 엘런 모어하우스와 세스 브라운이 최근의 그... 소동 이후로 생각을 바꿨어. 회사의 이미지에 해가 되네, 법률을 서커스로 만들고 있네 어쩌네 하면서. 너도 알겠지. 하지만 강력한 지지자도 두 명 있어. 앤 카릴레와 창립자인 마이클 케네디 본인이야. 그는 굉장한 인물이지. 어쨌든 네가 상황을 정확히 알고, 안에서 투쟁할 때 누구

에게 의지하면 될지 알았으면 해서 전화했어.”

“고마워. 스튜... 내가 자리를 잡을지에 대해 왜 신경을 써? 네게 무슨 의미가 있어?”

수화기 건너편에서 정적이 이어졌다. 마침내 스튜어트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레이샤, 바깥 세상 사람들이 모두 멍청이는 아니.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성취를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도.”

그녀의 마음속에 빛이, 가벼운 빛의 거품이 떠올랐다.

“피난처를 둘러싼 터무니없는 용도지역지구제 문제에서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아. 몰랐을지도 모르지만, 사실이야. 공원위원회 인간들이 끌어내려고 하는 것은... 허나 너도 알다시피 그 사람들은 앞잡이로 이용당하고 있을 뿐이지. 어쨌든 그 건이 법원까지 간다면 너에게 필요한 도움은 다 주어질 거야.”

“피난처는 내 일이 아니. 전혀.”

“아냐? 음, 내 말은 너희 전체적으로 말이야.”

“진심으로 고마워. 요새는 어떻게 지내?”

“잘 지내. 이제 아빠가 되었지.”

“정말? 아들이야, 딸이야?”

“딸이야. 저스틴이라고, 날 미치게 하는 예쁘장한 꼬맹이지. 레이샤, 다음에 아내를 소개시켜 주고 싶어.”

“좋아.”

레이샤는 그날 밤에 변호사 시험 준비를 했다. 거품은 그녀의 마음속에 머물렀다. 레이샤는 그 감정을 정확히 느꼈다. 즐거움이었다.

모두 다 괜찮아질 터였다. 그녀와 사회—켄조 야가이의 사회, 로저 캠프의 사회—사이의 암묵적인 계약은 지켜질 것이다. 반발, 다툼 그리고... 그래, 증오에도 불구하고. 문득 토니가 말한 스페인의 거지들이 떠올랐다. 자신들은 약하기에 강자에게 분노하는 거지들. 그래, 그렇지만 계약은 버티리라.

레이샤는 그렇게 믿었다.

믿었다.

8월에 변호사 시험을 쳤다. 별로 어렵지 않았다. 동기인 남학생 두 명과 여학생 한 명이 레이샤가 안전하게 택시를 탈 때까지 일부러 태연한 척 말을 걸었다. 택시기사는 그녀의 얼굴도 신호등도 알아보지 못했다. 동기 세 명은 모두 수면인이었다. 지나가던 학부생 두 명이 레이샤를 훑어보더니 코웃음쳤다. 깔끔하게 면도한 얼굴에 멍청한 부자의 무의미한 오만함

이 똑똑 떨어지는 금발 남자였다. 레이샤의 여자 동기가 맞서 코웃음쳤다.

다음 날 아침에 시카고로 날아갈 예정이었다. 엘리스와 그곳에서 만나기로 했다. 호숫가의 저택을 청소하고 로저의 개인 사물을 정리한 다음 집을 부동산 시장에 내놓아야 했다. 지금까지는 바빠서 처리할 시간이 없었다.

레이샤는 어디선가 구해온 고풍스런 모자를 쓰고 온실에서 난, 재스민, 시계꼴에 물을 주던 아버지를 떠올렸다.

갑자기 현관벨이 울렸다.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에 레이샤는 화들짝 놀랐다. 외부 카메라를 켜다. 어쩌면 조너선이나 마사가 깜짝 축하 파티를 해주러 보스턴으로 돌아왔는지도 모른다. 어쩌서 뭔가 축하할 이벤트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리처드가 카메라를 응시하고 서 있었다. 그는 울고 있었다.

레이샤가 다급히 문을 열었지만 리처드는 들어오지 않았다. 레이샤는 카메라를 통해서 슬픔처럼 보였던 표정이 사실은 다른 감정이었음을 깨달았다. 분노의 눈물이었다.

“토니가 죽었어.”

레이샤가 멍하니 손을 내밀었지만 리처드는 마주 잡지 않았다.

“구치소에서 살해당했어. 교도관이 아니라 다른 죄수들이 마당에서 죽였어. 살인자, 강간범, 상해범, 지구상의 인간 쓰레기들... 그런 자식들이 토니를 죽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 거야. 단지 토니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리처드가 레이샤의 팔을 움켜쥐었다. 너무 세게 쥐어서 살갗 아래의 뼈가 바들바들하며 신경을 눌렀다.

“그저 다르지만은 않았지. 더 나았으니까. 토니가 우월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우월하기 때문에, 지랄 맞게도 우린 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할까 봐 나서서 그렇다고 외치질 않지... 맘소사!”

레이샤는 저런 팔을 뺄때 문지르며 리처드의 일그러진 얼굴을 응시했다.

“쇠파이프로 때려죽였어. 대체 죄수들이 어디서 쇠파이프를 구했는지 아는 사람도 없어. 뒤통수를 쳐서 넘어뜨린 다음에 몸을 앞으로 굴러서...”

“그만해!”

레이샤가 울먹였다.

리처드가 레이샤를 바라보았다. 고향을 치고 그녀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지만, 그가 지금에서야 처음으로 레이샤를 제대로 보고 있는 것만 같아 혼란스러웠다. 레이샤는 공포에 질려 리처드를 쳐다보며 팔을 문질렀다.

그가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넌 피난처로 데려가려고 왔어. 댄 젠킨스와 버논 볼리스가 밖에 세워놓은 차에서 기다리고 있어. 필요하다면 강제로라도 데리고 가겠어. 하지만 네 발로 따라오겠지? 너도 상황을 알겠지? 여기 있으면 위험해. 넌 눈에 띄고 미인이야. 누구보다 자연스레 타깃이 될 거

라고. 널 강제로 데려가야 할까? 아니면 너도 마침내 우리에게 피난처 외의 선택은 없다는 사실을—저 개새끼들이 우리에게 다른 선택을 남겨놓지 않았음을—이해했어?”

레이샤는 눈을 감았다. 바닷가의 열네 살 토니. 토니의 사납게 빛나던 눈빛. 인터루킨-1에 가장 먼저 손을 내밀던 토니. 스페인의 거지들.

“가겠어.”

레이샤는 그토록 분노한 적이 없었다. 긴긴 밤 내내 발작적으로 찾아왔다가 잠시 잤아들지만, 곧 다시 밀려드는 분노가 두려웠다. 리처드는 서재의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레이샤를 품에 안았다. 리처드의 품 안이라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거실에서는 댄과 버논이 낮은 목소리로 얘기했다.

가끔 분노는 고통으로 분출했다. 레이샤는 스스로의 목소리를 들으며 난 널 몰라라고 생각했다. 분노는 때로는 울음, 때로는 토니와 그들 모두에 대한 말로 튀어나왔다. 고통을 질러도 울어도 말을 해도 전혀 진정되지 않았다.

계획을 세우는 일은 조금 도움이 되었다. 자기 목소리 같지 않은 차갑고 건조한 말투로, 레이샤는 리처드에게 시카고의 저택을 정리하러 갈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가야 했다. 앨리스는 이미 가 있었다. 만약 리처드와 댄과 버논이 레이샤를 비행기에 태우고, 앨리스가 시카고에서 경호원들과 레이샤를 마중나오면 충분히 안전할 터였다. 그리고 돌아오는 비행기 티켓을 보스턴행에서 코네티컷행으로 바꾸고 리처드와 함께 피난처로 들어가면 됐다.

“사람들이 벌써 도착하고 있어. 제니퍼 샤리피가 불면인 공급자들에게 도저히 거부하지 못할 만큼 돈을 쏟아부으며 준비를 서두르고 있어. 이 집은 어떻게 할래? 가구와 터미널, 옷가지는?”

레이샤는 익숙한 서재를 둘러보았다. 온라인으로 구할 수 있는 정보를 담은 빨간색, 녹색, 갈색 법서들이 벽을 따라 꽂혀 있었다. 책상의 인쇄물 위에 커피잔이 놓여 있었다. 그 옆에는 오늘 오후에 택시기사에게 고집부려서 받은 영수증이 있었다. 들뜬 마음에 변호사 시험을 통과한 기념품으로 삼으려고 했었다. 액자에 넣어 걸어둘 생각이었다. 책상 위에는 켄조 야가이의 홀로그램 픽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씩게 뒤.”

리처드가 레이샤를 안은 팔에 힘을 주었다.

“이런 언니는 처음 봐.”

앨리스가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집정리 때문이 아니지?”

“어서 일어나 하자.”

레이샤는 아버지의 옷장에서 정장을 끄집어냈다.

“남편한테 줄 생각 있어?”

“안 맞아.”

“모자는?”

“필요 없어. 언니, 무슨 일이야?”

“그냥 하자니까!”

레이사는 캠든의 옷장에서 옷을 모두 끄집어내 바닥에 쌓고, ‘복지 기관 증명’이라고 갈겨쓴 종이를 그 위에 올렸다. 엘리스는 조용히, 이미 ‘부동산 경매’라는 쪽지가 붙은 서랍장에서 옷가지를 끄집어내 옷더미에 보태기 시작했다.

저택의 커튼은 모두 내려졌다. 엘리스가 어제 커튼을 떼고 카펫도 말아서 치웠다. 드러난 나무 바닥에 노을이 붉게 타올랐다.

“예전에 쓰던 방은 어떻게 했어? 가져갈 거 있어?”

“난 정리 끝냈어. 목요일에 이삿짐 센터에서 가지러 올 거야.”

“그래. 다른 건?”

“온실이 남았어. 지금까지 샌더슨이 물을 주긴 했는데, 어느 화분에 얼마나 줘야 하는지를 몰라서 어떤 화분은…”

“샌더슨은 해고해.”

레이사가 말을 잘랐다.

“식물들은 죽게 뒤흔드. 아니면 병원으로 보내든지. 네가 그러고 싶다면 말이야. 독성이 있는 것들만 주의하면 돼. 자, 서재 정리하자.”

엘리스가 캠든의 침실 한가운데에 말아놓은 카펫 위에 천천히 앉았다. 엘리스는 머리카락을 잘랐다. 레이사는 엘리스의 새로운 헤어스타일이 보기 좋다고 생각했다. 통통한 얼굴 주위를 들쭉 날쭉한 갈색 실크로 둘러친 모양이었다. 체중도 늘었다. 어머니와 닮아가고 있었다.

엘리스가 입을 열었다.

“내가 임신했다고 말했던 날 밤 기억해? 언니가 하버드로 가기 직전에?”

“서재 정리하자니까!”

“기억해? 언니, 제발 다른 사람 말을 단 한 번이라도 들어줄 순 없어? 매 순간마다 그렇게까지 아빠를 닮아야겠어?”

“난 아빠가 아니!”

“아니긴 뭐가 아니. 언니는 아빠가 만들어낸 모습 그대로야. 하지만 그게 핵심은 아니지. 그날 밤에 있었던 일 기억해?”

레이사는 카펫을 넘어서 문으로 걸어나갔다. 엘리스는 가만히 앉아 있었다. 잠시 후 레이사가 돌아왔다.

“기억해.”

“언니는 마치 울 것 같았어.” 엘리스가 냉정하게 말했다. 차분한 목소리였다.

“왜였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 내가 결국 대학에 안 가기 때문이었

는지도 모르지. 어쨌든 난 언니를 끌어안았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몇 년 만이었어, 언니—난 언니를 진짜 언니로 느꼈어. 한밤중에 복도를 돌아다니는 발소리, 아빠와의 과시적인 언쟁, 사립 학교, 인공적인 긴 다리와 금발... 그 모든 잡다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말이야. 언니를 안아줘야 할 것 같았어. 언니가 나를 필요로 하는 것 같았어. 필요로 하는 것 같았다고."

"무슨 소릴 하는 거야?"

레이샤가 파졌다.

"넌 곤란에 빠져 널 필요로 하는 사람하고만 가까워질 수 있단 소리니? 내가 상처 입고 괴로워할 때만 자매로 있어줄 수 있단 소리야? 너희 수면인들은 그런 식으로 연대하니? '내가 정신을 잃으면 날 지켜줘. 나도 너처럼 병신이거든?'"

"아냐. 언니가 고통받고 있을 때만 내 자매가 될 수 있었다는 말이야."

레이샤는 동생을 응시했다.

"넌 멍청해."

엘리스가 온화하게 대답했다.

"나도 알아. 언니에 비하면 난 멍청하지. 나도 알고 있어."

레이샤는 화가 나서 머리를 흔들었다. 방금 한 말이 부끄러웠지만, 그들 둘 다 레이샤의 말이 진 실임을 알고 있었다. 분노가 레이샤 안에 형체 없고 뜨겁고 공허한 암흑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형체가 없다는 점이 가장 끔찍했다. 형체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았다. 움직이지 않는 분노는 그녀 안에서 계속 타오르며 숨을 틀어막았다.

"열두 살 때 수전이 생일 선물로 드레스를 줬어. 언니는 어디 다른 데 있었지. 그 잘난 특수 학교에서 놀 하던 대로 어딘가에 야영을 하러 갔어. 드레스는 굉장히 아름다웠어. 옅은 하늘색에 엔티크풍 레이스로 장식된 실크 드레스였지. 난 정말 기뻐서. 드레스가 예뻐서만이 아니라 수전이 내게는 드레스를 주고 언니에게는 소프트웨어를 주었기 때문이었어. 그 드레스는 내 것이었어. 난 그 옷이 곧 나라고 생각했어."

해저름의 어둠 속에서 엘리스의 툭툭하고 평범한 몸매는 잘 보이지 않았다.

"처음 드레스를 입고 나간 날, 한 남자애가 말했지. '엘리스, 언니 옷 흠쳐 입고 왔냐? 언니가 자는 사이에?' 그러곤 미친 듯이 웃는 거야. 개들은 늘 그랬지. 난 곧 장 옷을 버렸어. 수전에게 이유를 설명하지도 않았어. 말했다면 수전은 이해했겠지. 언니 것은 뭐든지 언니 것이고, 언니 것이 아닌 것도 언니 것이었어. 아빠가 그렇게 해놓았지. 우리 유전자에 처음부터 그렇게 박아넣었어."

"너도야? 너도 다른 질투하는 거지들과 마찬가지로?"

엘리스가 카펫 위에서 몸을 천천히 일으키고, 구겨진 치맛자락을 손으로 쓸며 엉덩이의 먼지를 느긋하게 털었다. 그리고 레이샤에게로 걸어오더니 레이샤의 입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제 내가 보여?”

앨리스가 나지막이 물었다.

레이샤가 손을 입가에 대었다. 피가 느껴졌다. 전화벨이 울렸다. 캠프의 비공개 개인 화선이었다. 앨리스가 전화기로 걸어가 수화기를 들었다. 상대방의 말을 듣던 앨리스가 레이샤에게 차분히 수화기를 넘겼다.

“언니 전화야.”

레이샤는 일이 빠진 채 수화기를 받았다.

“레이샤, 케빈이야. 사건이 생겼어. 스텔라 베빙턴이 그룹넷이 아니라 전화로 내게 연락했어. 부모한테 모범을 뺐긴 것 같아. 전화를 받자마자 ‘스텔라예요! 절 때려요! 아빠가 취해서...’라는 비명이 들리고 전화가 끊겼어. 랜디는 피난처로 갔어. 쟁장, 모두 다 이미 떠났어. 스텔라는 아직 스킵 키에 있으니 네가 지금 가장 가까워. 서둘러 가 봐야 해. 믿을 만한 경호원은 있어?”

“응.”

레이샤는 없으면서도 그렇게 대답했다. 마침내 분노가 형체를 갖추기 시작했다.

“내가 처리할게.”

“스텔라를 집에서 어떻게 데리고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 널 알아볼 테고, 부모는 스텔라가 누군가에게 전화한 줄도 알고 있어. 어쩌면 애를 기절시켰을지도 몰라...”

“내가 처리할게.”

“뭘 처리해?”

앨리스가 물었다.

레이샤는 동생을 마주하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인 줄 알면서도 소리쳤다.

“너희들이 우리에게 하는 짓이야. 일곱 살 난 여자애가 불면인이라는 이유로 부모에게 폭행당하고... 그제 너희보다 우월하다는 이유만으로...”

레이샤는 계단을 뛰어내려가 공항에서 들고 온 렌터카로 달려나갔다.

앨리스가 바로 뒤쫓아왔다.

“언니, 그 차는 안 돼. 그런 렌터카는 금세 추적돼. 내 차로 가자.”

레이샤가 고함을 질렀다.

“내가 뭐라고 생각하는...”

앨리스는 너무 구형이라 Y에너지함이 처진 군살처럼 양옆으로 드러난 낡은 도요타의 문을 당겨 열더니, 레이샤를 조수석에 밀어넣고 문을 꽁 닫은 다음 운전석에 앉았다. 앨리스의 손은 차분했다.

“어디야?”

현기증이 났다. 레이샤는 좁은 도요타 안에서 가능한 한 깊이 머리를 다리 사이로 숙였다. 마지막 식사는 이틀, 아니 사흘 전이었다. 변호사 시험 전날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현기증이 잦아들었

다가 고개를 들자마자 다시 찾아왔다.

레이샤는 앨리스에게 스텔라의 주소를 땀다.

“뒷좌석에 가만히 있어. 클러브 박스에 스카프가 있으니깐 덮어 써. 얼굴이 최대한 안 보이게 해.”

앨리스는 42번 고속도로변에 차를 세웠다.

“여긴 스텔라의...”

“임시 경호원 고용소야. 우린 보호받고 있는 것처럼 보여야 해. 경호원에게 사정을 설명할 필요는 없어. 금방 돌아올게.”

앨리스는 싸구려 검은색 정장을 입은 덩치 큰 남자와 3분 안에 돌아왔다. 그는 앨리스 옆의 조수석으로 몸을 구겨넣고 묵묵히 앉았다. 앨리스는 그를 소개하지 않았다.

작고 조금 낡은 집이었다. 아래층만 불을 밝히고 위층은 깜깜했다. 시카고 반대편의 북쪽 하늘에서는 별이 빛나기 시작했다.

앨리스가 경호원에게 말했다.

“차에서 내려 차문 옆 여기 서 있어요. 아니, 좀더 잘 보이게요. 그리고 제가 공격받기 전에는 아무 짓도 하지 말아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앨리스가 걸어나갔다. 레이샤는 뒷좌석에서 간신히 빠져나와 플라스틱 현관까지 3분의 2쯤 다가간 동생을 붙잡았다.

“앨리스, 대체 무슨 짓이야? 내가...”

“목소리 낮춰.”

앨리스가 경호원의 눈치를 살피며 말했다.

“언니, 생각해봐. 저들은 언니를 알아볼 거야. 여기, 이렇게 시카고 가까이에 불면인 딸을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언니 사진을 예전부터 잡지 같은 데서 봤겠지. 언니가 나오는 장거리 홀로비드도 봤을 거야. 그들은 언니를 알아. 언니가 변호사가 된다는 것도 알고 있을걸. 하지만 나는 모르는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냐.”

“앨리스...”

“제발 언니, 차로 돌아가!”

앨리스는 날카롭게 꾸짖고 현관문을 두드렸다.

레이샤는 인도에서 벗어나 버드나무 그늘 아래 숨었다. 남자가 문을 열었다. 텅 빈 표정이었다.

“아동보호국에서 왔습니다. 이 집 전화로 여자아이의 신고를 받았 습니다. 비키십시오.”

“우리집에는 여자애가 없어요.”

“중요도 1급인 긴급 상황입니다. 아동보호법 제186조에 의거해 비켜서세요!”

남자가 여전히 멍한 표정을 지은 채 차 옆에 서 있는 멍치 큰 경호원을 슬쩍 살폈다.

“수색영장은 있어요?”

“1급 아동 보호 긴급 상황에는 수색영장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저를 들여보내주시지 않으면 상
상도 하기 싫은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겁니다.”

레이샤는 입술을 꼭 다물었다. 터무니없었다. 아무도 안 믿을 알파한 거짓말이었다. 앨리스에게
맞은 자리가 쓰렸다.

남자가 비켜섰다.

경호원이 앞으로 나섰다. 레이샤는 망설이다가 가만히 있었다. 경호원이 앨리스와 함께 집으로
들어갔다.

레이샤는 압축 속에서 홀로 기다렸다.

3분쯤 지나 경호원이 아이를 안고 나왔다. 현관 불빛을 받은 앨리스의 통통한 얼굴이 창백했다.
레이샤는 앞으로 뛰어나가 차문을 열고 경호원이 아이를 뉘게 도왔다. 경호원이 신중한 얼굴을 곤
혹스러운 듯 찌푸리고 있었다.

“여기, 100달러 더 줄게요. 시내까지 혼자서 돌아갈 돈이에요.”

“이보슈...” 경호원은 구시렁거리면서도 돈을 받아들었다. 앨리스가 차를 출발시켰다. 경호원이
그들을 눈으로 좇으며 서 있었다.

“곧장 경찰에 신고하겠지. 그렇잖으면 조합원 자격을 잃을지도 모르니까.”

레이샤가 절망적으로 말했다.

“나도 알아. 하지만 그때쯤이면 우린 차에 없을 거야.”

“어디로 가는데?”

“병원.”

“앨리스, 안 돼...”

레이샤는 말을 끝내지 않고 뒷좌석으로 몸을 틀었다. “스텔라? 정신이 드니?”

“네.”

작은 목소리가 돌아왔다.

레이샤는 손으로 더듬어 뒷좌석 등을 찾았다. 스텔라는 고통스런
얼굴로 누워 있었다. 왼팔을 오른손으로 받치고 있었다. 왼쪽 눈 위
로 멍이 들었고 형클어진 붉은 머리칼은 지저분했다.

“레이샤 캄든이네요.”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팔이 부러졌어.” 앨리스가 말했다.

“아가, 너...”

목이 꼭 막혀 말을 하기가 어려웠다.

“의사한테 갈 때까지 참을 수 있겠니?”

“네. 집으로 돌려보내지만 말아주세요!”

“그래, 약속할게.”

레이샤는 대답하고 앨리스를 흘끔 돌아보았다. 그리고 토니의 표정을 보았다.

“남쪽으로 10마일쯤 가면 지역 병원이 있어.”

“어떻게 알아?”

“한번 가봤어. 약물 과용으로.”

앨리스가 짧게 대답했다. 그녀는 맹렬히 생각하는 표정으로, 운전대를 구부정하게 잡고 차를 몰았다. 레이샤도 유괴 혐의를 피할 방법을 찾아내려 애쓰며 생각에 잠겼다. 아이가 자발적으로 따라왔다는 주장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었다. 스텔라는 당연히 협력하겠지만, 나이와 상황을 고려하건대 심신 상실 상태였다는 이유로 법적인 증거력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앨리스, 온라인 인증 보험 번호가 없으면 스텔라를 병원에 데려갈 수도 없어.”

“잘 들어.” 앨리스는 레이샤가 아니라 어깨 너머의 뒷좌석을 향해 말했다.

“스텔라, 이렇게 하자. 난 네가 내 딸이고, 우리가 길가에 잠깐 멈춰서서 쉬는 사이에 네가 커다란 바위를 올라가다가 떨어졌다고 할 거야. 우린 네 할머니를 불러 캘리포니아에서 필라델피아로 가는 중이야. 네 이름은 조던 와트로스이고 다섯 살이야, 알겠니?”

“전 일곱 살이에요. 곧 여덟 살이 돼요.”

“넌 굉장히 명치 큰 다섯 살이야. 생일은 3월 23일이지. 할 수 있겠니, 스텔라?”

“네.”

어린아이가 대답했다. 목소리에 아까보다 힘이 들어 있었다.

레이샤가 앨리스를 쳐다보았다.

“너는? 할 수 있어?”

“당연하지. 나는 로저 캡든의 딸이야.”

앨리스는 스텔라를 안듯이 부축하고 작은 지역 병원 응급실로 들어갔다. 레이샤는 차 안에서 땅딸막한 여자와 한쪽 팔이 비틀어진 강마른 아이를 지켜보았다. 그리고 앨리스의 차를 주차장 구석의 마른 단풍나무 아래에 어설프게 숨겨 댄 다음 차문을 잠그고 스카프를 얼굴에 더 단단히 매었다.

앨리스의 차번호와 이름은 지금쯤이면 모든 경찰서와 렌터카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 들어 있을 것이다. 의료 기록은 더 느렸다. 반세기 동안 이어진 다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적 영역으로 남아 있는 의료계는 정부의 개입을 싫어했고, 그래서 보통 지역의 정보를 하루에 한 번만 업로드했다. 앨리스와 스텔라는 병원에서 펜찰을 터였다. 아마도. 그러나 앨리스는 이제 차를 빌릴 수 없었다.

레이샤는 빌릴 수 있었다.

그러나 렌터카 회사로 전달될 앨리스 캡든 와트로스의 데이터 파일

에는 그녀가 레이샤 캠프의 쌍둥이라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지도 몰랐다.

레이샤는 주차장에 늘어선 차들을 바라보았다. 번쩍이는 고급 크라이슬러, 이케다 밴, 줄지어 선 중산층용 도요타와 메르세데스, 빈티지 99년 캐딜락—만약 잃어버린다면 주인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눈앞에 그려졌다—열두어 대의 소형차, 제복을 입은 운전사가 잠들어 있는 공중차. 낡은 농장 트럭.

레이샤는 트럭을 향해 걸어갔다. 남자가 운전석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아버지가 떠올랐다.

“안녕하세요.”

남자는 창문을 내렸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딱진 갈색 머리였다.

“저기 있는 공중차 보이죠?” 레이샤가 어린 아가씨처럼 높은 목소리를 내며 말했다. 남자가 무심한 표정으로 공중차를 보았다. 이쪽에서는 운전사가 잠들어 있는 것까지는 보이지 않았다.

“저 남자가 제 경호원이에요. 제가 아버지가 시킨 대로 병원에 들어간 줄 알고 있죠. 이 입술을 치료하라고요.”

엘리스에게 맞은 자리가 욕심거렸다.

“그래서?” 레이샤가 발을 굴렀다.

“전 병원에 가기 싫어요. 경호원이나 아빠나 다 싫어요. 나가고 싶어요. 트럭 저 주시면 4,000 줄게요. 현금으로요.”

남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가 담배를 던지고 다시 공중차를 살폈다. 공중차 운전사는 덩치가 컸고, 공중차는 비명을 지르면 쉬 들릴 만한 거리에 있었다.

“합법적인 진짜 돈이에요.”

레이샤가 의기양양한 척하며 말했다. 다리가 떨렸다.

“돈부터 보여줘.”

레이샤는 남자의 손이 닿지 않게 트럭에서 몇 걸음 물러나 돈을 꺼냈다. 그녀는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일에 익숙했다. 언제나 브루스나 브루스 같은 사람이 있었다. 언제나 보호받았다.

“조수석 쪽으로 내려와 옆으로 서요. 열쇠는 여기서 보이게 좌석에 놓아두고, 조수석 문은 잠궜요. 그러면 제가 차 위에, 당신한테 보이는 자리에 현금을 올려놓죠.”

남자가 자갈을 쏟아붓는 듯한 웃음소리를 냈다.

“꼬마 대브니 앵 애청자지? 부자 학교에선 그런 걸 가르치디?”

레이샤는 데브니 앵이 뭔지 몰랐다. 그녀는 남자가 그녀를 속일 방법을 궁리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승리감을 숨기려 애썼다. 레이샤는 토너를 생각했다.

“알았어.”

그가 트럭에서 내렸다.

“문을 잠가요!”

그가 씩 웃고 문을 다시 열더니 잠갔다. 레이샤는 돈을 차 위에 올리고 재빨리 운전석을 열고 차에 올라 문을 잠근 다음 창문을 올렸다. 남자가 웃음을 터뜨렸다. 레이샤는 시동을 걸고 트럭을 출발시켜 차도로 나갔다. 손이 떨렸다.

레이샤는 그 구획을 천천히 두 번 돌았다. 돌아와보니 남자는 없었고 공중차 운전사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남자가 악의로 공중차 운전사를 깨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 레이샤는 트럭을 세우고 기다렸다.

한 시간 반 뒤에 앨리스와 간호사가 응급실에서 스텔라가 탄 휠체어를 밀고 나왔다. 레이샤는 트럭에서 뛰어내려 두 팔을 흔들며 소리쳤다.

“앨리스, 이쪽이야!”

어두워서 앨리스의 표정이 보이지 않았다. 앨리스가 간호사에게 빨간 차를 타고 왔다고 했다가 낡은 트럭을 보고 당황하지 않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었다.

“이쪽은 조련의 팔을 고쳐주시는 사이에 제 전화를 받고 온 친구 줄리 버가돈이에요.”

간호사가 흥미 없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스텔라를 도와 높은 트럭에 태웠다. 트럭에는 뒷좌석이 없었다. 한쪽 팔에 김스를 한 스텔라는 약에 취한 것 같았다.

“어떻게 했어?” 트럭을 출발시키는 레이샤에게 앨리스가 물었다.

레이샤는 대답하지 않았다. 경찰 공중차가 주차장 끝에 착륙했다. 경찰 둘이 내리더니 단풍나무 아래에 남겨둔 앨리스의 차로 곧장 걸어갔다.

“세상에.”

앨리스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깃들었다.

“우릴 뒤쫓지 못할 거야. 이 트럭은 괜찮아. 믿어도 돼.”

“언니.”

앨리스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다.

“스텔라가 잠들었어.”

레이샤는 앨리스의 어깨에 기댄 아이를 보았다.

“아냐. 진통제로 의식을 잃었을 뿐이야.”

“괜찮아? 정상이야? 스텔라에게?”

“우리도 기절은 해. 심지어 약물로 잠들 수도 있어.”

한밤중 숲 속에서 토니와 그녀와 리처드와 제니퍼...

“물랐어?”

“응.”

“우린 서로를 잘 모르는 것 같네, 그치?”

그들은 말없이 차를 몰았다. 마침내 앨리스가 입을 열었다.

“앨 어디로 데려갈 거야?”

“나도 모르겠어. 경찰은 불면인부터 찾아볼 테고...”

“그건 너무 위험해. 요즘 분위기에서는.”

앨리스가 지친 듯이 말했다.

“하지만 내 친구들은 모두 캘리포니아에 있어. 이 고철 덩어리를 몰고 거기까지 가면서 점문에 한 번도 안 걸릴 순 없을 거야.”

“어쨌든 도중에 서겠지.”

“어떻게 하지?”

“생각해볼게.”

고속도로 출구에 공중전화가 있었다. 그룹넷과 달리 보안이 안 되어 있을 터였다. 케빈의 전화는 도청당하고 있을까? 아마 그렇겠지.

피난처 연락처의 경우에는 틀림없었다.

피난처. 케빈은 이미 다들 그곳에 가는 중이거나 갔다고 했다. 앨리게니 산맥을 안전한 우리처럼 둘러치고 숨어 있었다. 스텔라처럼 갈 수 없는 어린아이들만 남겨놓고.

어디로 가지? 누구에게 데려가지?

레이샤는 눈을 감았다. 불면인은 안 된다. 경찰이 몇 시간 안에 스텔라를 찾아낼 것이다. 수전 멜링? 허나 수전은 앨리스의 눈에 띄는 양어머니인데다 캠프의 공동 상속자였다. 사태가 알려지자마자 경찰은 그녀를 심문할 것이다. 레이샤가 알고, 또 믿는 수면인이어야만 했다. 그런 조건에 맞는 사람이 있을까? 있다고 한들 이토록 큰 위험을 그 사람에게 맡겨야 할까?

레이샤는 어두운 공중전화 박스 안에 한참을 서 있다가 트럭으로 갔다. 앨리스는 머리를 좌석에 기대고 잠들어 있었다. 트럭으로 침이 한줄기 흘렀다. 전화박스의 어슴푸레한 빛을 받은 창백한 얼굴이 꽤 지쳐 보였다. 레이샤는 공중전화로 돌아갔다.

“스튜어트? 스튜어트 서터?”

“누구세요?”

“레이샤 캠프이야. 일이 생겼어.”

레이샤는 단도직입적으로 사건을 설명했다. 스튜어트는 말을 끊지 않았다.

“레이샤...”

스튜어트가 말을 하려다가 멈추었다.

“스튜어트, 도움이 필요해.”

‘앨리스, 내가 도와줄게.’ ‘언니 도움은 필요 없어.’

바람이 전화박스 옆의 어두운 공터에 휘몰아쳤다. 레이샤는 몸을 떨었다. 바람에서 레이샤는 거지의 가냘픈 애원을 들었다. 바람 소리에서, 그녀 자신의 목소리에서.

“알았어. 이렇게 하자. 뉴욕 리플리에 사촌이 살고 있어. 펜실베이니아 주 경계에 바로 맞닿은 곳이야. 동쪽으로 차를 몰아, 나한테 뉴욕 변호사 자격이 있으니까 뉴욕으로 와야 해. 아이를 그쪽으로 데

려와. 사촌에게 연락해서 네가 간다고 말할게. 젊었을 때 사회운동가였던 할머니인데, 이름은 자넷 패터슨이야. 집주소는...”

“네 사촌이 도와줄 거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 감옥에 갈지도 몰라. 너도 마찬가지야.”

“자넷이 젊었을 때 얼마나 감옥을 들락거렸는지 알면 놀랄걸. 베트남전 반대 시위까지 거슬러가는 정치 투사거든. 하지만 아무도 감옥에 가지 않을 거야. 이제 나는 네 공식 변호인으로 면책 특권이 있어. 스텔라를 주정부의 피보호자로 신청할게. 스코키에서 네가 남긴 병원 기록이 있으니 어렵지 않아. 그 다음에 뉴욕의 위탁 가정으로 옮기면 돼. 딱 맞는 사람들을 알고 있어. 공정하고 상냥한 사람들이야. 앨리스는...”

“스텔라는 일리노이 주민이야. 뉴욕에서는...”

“괜찮아. 불면인의 수명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된 뒤로 입법부는 겁먹거나 질투하거나 아니면 그냥 화났을 뿐인 유권자들의 명명한 의안을 마구잡이로 통과시켜왔어. 그 결과 우리가 법이라고 부르던 것은 모순, 불합리, 허점으로 엉망진창이 되었지. 장기적으로는 지금 상태가 계속되지 않겠지만—최소한 나는 나아지길 바라고 있어—일단 그때까지는 허점들을 이용할 수 있어. 스텔라건을 누구도 본 적 없는 배배 꼬인 사건으로 만들게. 해결될 때까지 스텔라는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을 거야. 하지만 앨리스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일리노이 주 변호사가 필요해.”

“한 명 있어. 캔다이스 홀트야.”

“아니, 불면인은 안 돼. 날 믿어, 레이샤. 괜찮은 사람을 찾을게. 아는 변호사 중에... 레이샤, 우는 거야?”

“아니.”

레이샤는 흐느끼며 대답했다.

“담소사, 개자식들. 일이 이렇게 되어서 미안해, 레이샤.”

“미안해 하지 마.”

레이샤는 스튜어트의 사촌 집으로 가는 길을 들고 트럭으로 돌아왔다. 앨리스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스텔라는 의식이 없었다. 레이샤는 트럭문을 최대한 조용히 닫았다. 엔진이 시끄럽게 울렸지만 앨리스는 깨지 않았다.

좁고 어두운 운전석에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 스튜어트 서터, 토니 인디비노, 수전 델링, 켄조 야가이, 로저 캄든.

레이샤는 스튜어트 서터에게 말했다. 넌 내게 모어하우스, 케네디의 상황을 알려주려고 전화했어. 스텔라를 위해 네 경력과 사촌의 위험을 무릅쓰고 있어. 아무것도 얻지 못할 텐데 말이야. 버니 쿤의 뇌에 관해 내게 미리 알려준 수전 델링과 마찬가지로. 수전, 아버지의 꿈에 자신의 삶을 잃어버렸으나 스스로의 힘으로 되찾은 사람. 서로에 대한 배려 없는 계약은 계약이 아니야. 1학년짜리도 다 아는 사실이지.

그녀는 켄조 야가이에게 말했다. 거래는 항상 선형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걸 놓치셨죠. 만약 스투어트가 제게 무언가를 주고, 제가 스텔라에게 뭔가를 주고, 지금으로부터 10년이 지나 우리에게 받은 것 덕분에 다른 사람이 된 스텔라가 다른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준다면—그것은 순환이에요. 네, 거래의 순환이죠. 모두는 계약으로 묶이지 않아도 필요한 존재예요. 말에게 물고기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토니에게 말했다. 그래, 스페인에는 아무것도 거래하지 않고 아무것도 주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지들이 있어. 하지만 스페인에는 거지만 있는 게 아니야. 거지한테서 물러난다면, 우리는 그 나라 전체에서 물러나는 셈이 돼. 도움의 순환 가능성에서 물러나는 거야. 수년 전 앨리스가 자기 방에서 내게 원했던 것이 바로 그 도움의 순환이었어. 겁에 질리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임신한 앨리스는 나를 돕고 싶어 했어. 나는 필요 없었기 때문에 앨리스의 도움을 받아들이지 않았지. 하지만 난 지금 도움이 필요해. 그때 앨리스가 원했듯이, 거지들도 도움을 받을 뿐 아니라 도움을 주어야 할 필요가 있어.

마침내 아버지만 남았다. 밝은 눈을 빛내며 강인한 손으로 이국적인 꽃의 두툼한 잎을 쥔 아버지가 보였다. 레이샤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빠가 틀렸어요. 앨리스는 특별해요. 아, 아빠, 앨리스의 특별함이란! 아빠가 틀렸어요.

이렇게 생각하자마자 빛이 그녀를 가득 채웠다. 가벼운 거품 같은 즐거움이나 시험을 치를 때의 날카로운 선명함이 아니었다. 두 아이가 이리저리 뛰놀던 온실의 유리창을 통과한 부드러운 햇살이었다. 갑자기 몸이 가벼워졌다. 부유감과는 달랐다. 다른 어딘가로 향하는 햇살이 깔끔하게 통과해가는 반투명한 매개체가 된 것 같았다.

레이샤는 잠든 여인과 상처 입은 아이를 싣고 밤을 넘어 동쪽으로, 주 경계를 향해 달렸다.

the end

앤서 크레스는 1948년 뉴욕에서 태어나 1970년대 중반부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현실적인 개인성을 갖는 근미래를 배경으로 한 우아하면서도 날카로운 작품들을 다수의 SF 잡지에 발표해왔다. 유전자 조작과 같은 생명 공학 기술을 다룬 하드 SF에 여성적 감성을 결합한 중단편으로 특히 유명하다. 《스페인인 거지들》은 불면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불면인(Sleepless)' 3부작의 출발점이 된 작품으로, 유전자 조작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는 사회적 불평등과 윤리적 논쟁을 이란성 쌍둥이 자매의 갈등과 성장을 통해 그려내 폭로성, 연설력, 아시아포스트 SF 크로니클상을 휩쓸었다.